

#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20일 06시 54분



# 목차

목차	2
자유게시판	3
사월의 사이코드라마-여든아홉번 째 해단아'숨 곳' 안내입니다.	3

## 사월의 사이코드라마-여든아홉번 째 해단아'숨 곳' 안내입니다.

2023.03.20 조회수 68 등록자 김현주

# 해단아 '숨 곳' 여든아홉번째

## "봄, 다시피는 꽃"

해단아 '숨 곳'은 전통굿이 아닙니다. 사이코드라마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곳의 긍정정신과 생명정신을 계승하여 끊임없이 나다움을 찾으려는 일탈의 장이자 구수한 멋이 살아있는 '생 놀이예술마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꽃을 피운다는 건 몸이 터진다는 것  
 얼음장을 뚫는 햇살로 온몸이 으스러지는 이품을 건디는 일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으로부터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지금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더라도  
 그대여 조금해하지 말라  
 행복이란 이름으로 고통을 덮으려 하지 말라  
 이 세상에 아프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꽃이 핀다는 건 아프게 봄이 온다는 것

외로움과 쓸쓸함이 한없이 밀려와도  
 슬픔으로 마음을 애태우지 말라  
 꽃을 피운다는 건 막힌 숨이 터진다는 것  
 그대안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하더라도  
 결코 위로받는데 머무르지 말라  
 언어는 의식의 끝에서 맴돌고  
 상처는 훨씬 깊은 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봄을 맞이한다는 건 숨을 쉬는다는 것

꽃이 핀다는 건 나만의 숨을 쉬는다는 것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향긋한 봄내음 맡는 일  
 그대 깊은 곳에 접어 둔 소박한 꿈이 있다면  
 켜켜이 쌓인 먼지 털어내는 걸 잊지 말라  
 만약 그대 안에 힘없이 주저앉은 나를 보더라도  
 결단코 그대여 있는 그대로의 아픔에서 비켜서지 말라  
 그리움이 먼 데서 오고 외로움이 등 뒤에서 오듯  
 꽃의 아픈 운명처럼 손끝에 닿지 않는 어떤 것에 다가서는 일  
 나만의 빛깔 나만의 소리 나만의 숨결

- 일 시: 2023.4.8(토) 13:00 ~ 2023.4.9(일) 13:00까지
- 장 소: 치유문화공간 집 (여수 송소 바다 고틀머리/ 여수시 소호로 208-25)
- 길 벗: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는 분,  
지치고 우울하고 에너지가 바닥을 치는 분  
<인생의 덧, 근심걱정거리, 분노, 불안, 우울, 성격 및 관계문제 등>
- 길라잡이: **허효범** / 치유예술가, 해단아 '숨 곳' 운영자  
생명굿 전문가, 사이코드라마 디렉터, 예술심리상담가
- 참 가 비: 50,000원 (농협 312-0126-2594-61 김현주) 뒤풀이 10,000원  
총 참가인원은 10명 내외 선착순 <사전 접수>
- 일정 및 내용
  - ▶ 8일 여는마당 (13:00 ~ 13:50) - 몸짓, 소리짓, 이미지 짓  
치유마당 (14:00 ~ 19:30) - 생명굿 첫째마당  
- 생명굿 둘째마당  
풍류마당 (20:00 ~ 23:00) - 즉흥과 신명  
함께하는 잔치판
  - ▶ 9일 생명굿 셋째마당(10:00 ~ 12:00) or 갯가여행

문의: 010-7633-1072 김현주 (해단아 '숨 곳' 총무)

글쓰기

목록

이전글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입니다

다음글

애견놀이터 신설

COPYRIGHT © YEOSU.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 Yeosu Web Contents

